



음악 칼럼니스트 박마린 불어불문학을 전공 후 도블, 프랑스에서 20년간의 대기업 업무 경력을 쌓은 후 파리 10 대학에서 예술경영-공연기획/아티스트 매니지먼트 전문가 과정을 이수하였다. 프랑스 비평가 협회 멤버이며, 하우스 콘서트 정규 기획과 더불어 클래식 아티스트/공연기획 컨설턴트로 활동하면서 클래식 전문 디지털 매거진 클래식아장다([www.classicagenda.fr/author/marine/](http://www.classicagenda.fr/author/marine/)) 및 월간 <음악저널>에 기고하고 있다.

##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Villa SENAR

글 박마린

러시아 출신의 작곡가, 지휘자이자 피아니스트였던 라흐마니노프가 올해 탄생 150주년을 맞이하였다. 그는 말년에 스위스의 루체른 호숫가 헤르텐슈타인 언덕에 평화로운 거처를 마련하고 ‘코렐리 주제에 의한 변주곡’,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광시곡’, ‘교향곡 3번’을 작곡하며 마지막 창작열을 불태웠다. 라흐마니노프는 그의 전기 『Rachmaninoff's Recollections』의 저자인 음악학자 오스카 폰 라이스만(Oskar von Riesmann)이 살던 헤르텐슈타인을 방문하던 중 고국 러시아의 이바노브카(Ivanovka)를 연상시키는 자연경관과 평화로움에 매료되었다고 한다.

빌라 세나르(Villa SENAR)는 라흐마니노프 부부가 직접 그들의 이름과 성의 머리글자를 따서 (SErgei, NAAtalia, Rachmaninoff)로 명명하였는데, 성악가 샬리아핀(Fiodor Ivanovitch Chaliapine), 피아니스트 호로비츠(Vladimir Horowitz), 작곡가 메트너(Nikoali Medtner), 발레 안무가 포킨(Michael Fokine) 등 당대의 내노라

하는 예술가들이 라흐마니노프의 초대객으로 와서 답소를 나누며 즐기고 발차취를 남긴 장소이다. 에밀 펠릭스(Emil Felix)와 모리 엔 크랩스(Möri & Krebs)가 라흐마니노프의 취향을 최대한 존중하여 1930년대를 대표하는 바우하우스(Bauhaus) 스타일로 설계하였기에 건축학적 가치도 흥미롭다.

바우하우스 양식의 건물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드넓은 정원은 루체른 호숫가와 주변 산지의 경관을 유유자적하게 바라보고 있어, 얼마나 라흐마니노프의 영감을 자극했는지 충분히 짐작하도록 한다. 또한 빌라 내부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욕조를 데우는(욕조에 물을 채우기 전) 난방 시설, 작곡가가



©Kantonale Denkmalpflege, Priska Ketterer





호숫가에서 즐기던 초고속 모터보트 등… 라흐마니노프의 첨단기술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였는지 십분 짐작할 수 있다.

이곳은 최근까지 작곡가의 직계 상속인들의 소유지였다가 지난해 루체른주에서 공식 인수하였다. 그 후 대대적인 공사를 거쳐 라흐마니노프가 거주했던 1930년대 당시 모습에 최대한 충실하게 복원되었고, 지난 4월 작곡가 탄생 150주년 기념식 즈음하여 문화 공간으로 전면 공개되었다. 건축, 음악,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방문할 수 있도록 개방된 빌라 세나르의 관리는 루체른주가 맡게 되었고 문화 콘텐츠 기획과 홍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원 마련은 라흐마니노프 재단이 담당한다.

빌라 세나르가 문화공간으로 공개된다는 결정과 더불어 라흐마니노프 재단의 신규 예술감독으로 임명된 안드레아 로처는 “과거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주는 영감과 창작 에스프리(esprit)를 젊은 세대에게 전달, 계승하고 공유함이 재단이 추구하는 운영 방향”이라고 귀띔한다. 콘텐츠 기획은 루체른의 클래식 음악 전통을 이어가는 기관 및 단체들(루체른 페스티벌, 루체른 심포니 오케스트라, 루체른 음대를 비롯한 지역 내 음악교육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진행 중이며 재단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라고 한다.

빌라 세나르는 뮤지엄이나 공연장과는 다른 개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라흐마니노프 재단은 음악과 관련된 문화 이벤트 외에도 빌라 내부와 정원을 일반인들이 방문할 수 있는 가이드 투어 프로그램도 기획 중이다. 방문객들은 공공장

소를 방문한다기보다는 라흐마니노프 사택의 게스트로 초대된 느낌으로 현장 체험을 경험하게 된다고. 예술 감독은 “빌라 세나르는 여러모로 역사가 깃든 곳이다. 현장 투어는 음악, 건축, 첨단기술 면에서의 작곡가와 연관된 시대상을 관찰하고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1930년대에 작곡가가 소유했던 가구와 소품, 집기들은 당시 모습대로 잘 보존되어 원래 위치에 배치되었다. 그가 사용했던 스타인웨이 피아노도 복원을 거쳐 - 라흐마니노프 환갑 기념으로 스타인웨이 앤 선즈가 특별 제작 기증한 피아노인데 일반 콘서트용보다 1미터가 더 길게 설계되었다 - 라흐마니노프가 연습과 작곡을 위한 작업실로 썼던 공간에 배치되었다. 원래 모습대로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이곳에서 열리는 음악회나 학회의 인원수용 규모는 35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사전 예약제로 행사를 운영할 예정이다. 빌라 세나르는 라흐마니노프 재단이 주관하는 프로그래밍 콘텐츠 이외의 외부 이벤트도 열릴 수 있는 공간으로 공개된다. 또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중교통 인프라도 구축될 예정이라고 전해진다. ●